가톨릭부산
www.catholicbusan.or.kr
제2695호 2022. 3. 6.

사순 제1주일

소리주보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jubo@catb.kr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작품 : 박민경 유스티나
(성가정성당 · 부산가톨릭미술인회)

작품설명 :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창세 3,19 참조)는 가르침을 태피스트리로 재구성하였다. 자연의 생명력이 변화무쌍하게 생성되는 과정을 역동적 형태와 색감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유한한 존재성과 원초적인 생명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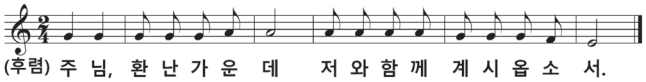
입 당 송 시편 91(90),15.16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 1 독 서 신명기 26,4-10

화 답 송 시편 91(90),1-2.10-11.12-13.14-15 (◎ 15ㄴ 참조)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1.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2.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3. 행여 네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
4.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

제 2 독 서 로마서 10,8-13

복음 환호송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루카 4,1-13

영성체송 마태 4,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3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생명 윤리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생명 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도록 기도합시다.

강 론

유혹의 기술과 하느님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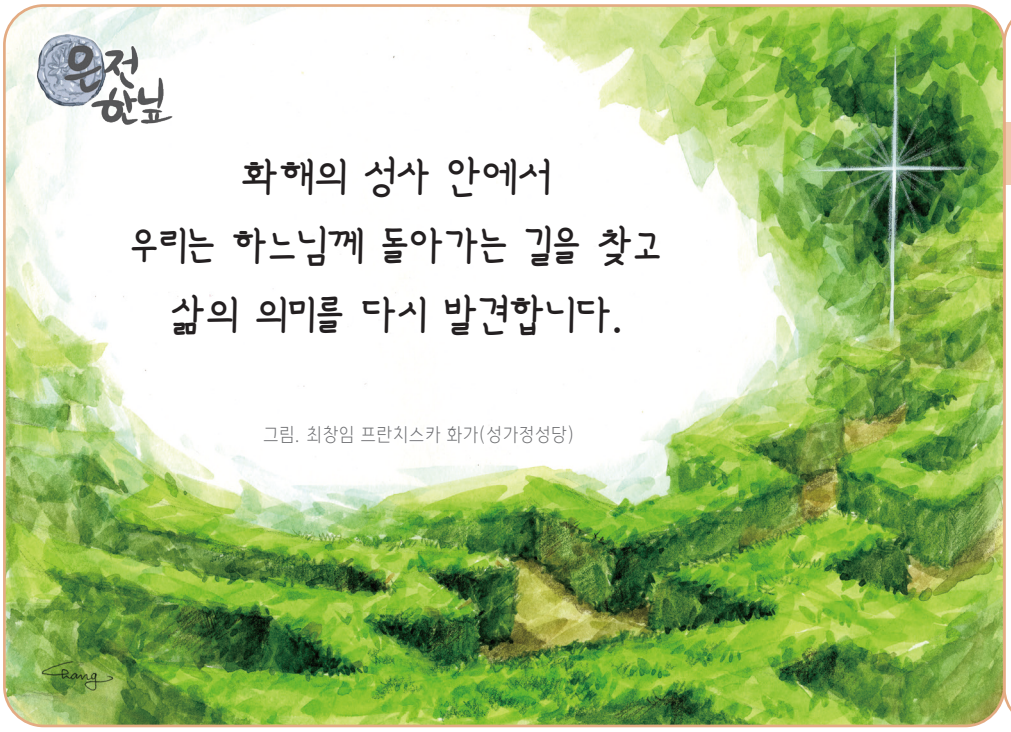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악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빵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고 배고픈 이가 빵을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느님을 원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고 당연히 해도 될 것 같은 일 앞에서도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나쁜 일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어쩌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일을 통해서도 악마는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유혹의 기술은 너무 평범하고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 해서 악마에게 경배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등장인물이 악마가 아니고 얻는 것도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혹은 불이익을 피하고자, 거짓과 탐욕, 불의와 횡포에 고개를 숙인다면..... 이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의인을 폭행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약탈합니다. '하느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느님 이번 한 번만요.'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걸었음에도 실패한 악마가 우리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을 실패한 악마가 세 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왠지 최상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윈윈 전략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느님께도 영광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느님을 열심히 섬겨온 저에게도 좋고 하느님께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허영심이 피어오를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장면을 묵상하면서 다섯 가지의 이유와 열 가지의 유익함을 내세워 하나이신 그분의 뜻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유혹의 기술을 물리치는 가장 큰 힘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단순한 일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위로와 도움을 청합시다.**

김 대 성
사도요한 신부
동대신성당 주임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3.7(월)~8(화)
김대성 신부(동대신성당 주임)
3.9(수)~12(토)
엄열 신부(밀양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3.9(수) <하늘타리>
울산대리구 신앙수기 공모전 당선자
출연 : 김인옥 모니카, 우진숙 수산나

다정다감 다섯시
월~금 17:00~18:00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 환경살리기 프로젝트 '공동의 집, 지구' 1편
: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다정이들과의 첫번째 실천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갈라 6,9-10)

1. 씨 뿌리기와 수확

바오로 성인은 기회(kairós), 곧 미래 수확을 기대하며 선의 씨앗을 뿌리기에 적절한 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적절한 때'란 무엇입니까? 사순 시기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초대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소유가 아니라 내어 줌에서, 축적이 아니라 선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나누는 일에서 발견하도록 합니다.

처음으로 씨를 뿌리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크나큰 관대함으로 "계속해서 인류에게 좋은 씨를 뿌려 주십니다"(「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54항).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살아 있고 힘이 있는"(히브 4,12)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선물에 응답하라고 요청받습니다.

수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수확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뿌린 선의 첫 열매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소소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선익을 위하여 씨를 뿌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애로운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선의 씨앗이 지닌 숨겨진 힘에 대한 희망으로, 다른 이들이 수확할 열매들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일입니다"(「모든 형제들」, 196항).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고 드높여 줍니다. 우리 삶과 행동의 무르익은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요한 4,36)이고, '하늘의 보물'(루카 12,33; 18,22 참조)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다주시는 위대한 빛입니다.

2.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시대에 구원의 씨앗을 심으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위대한 희망"으로 지상의 희망에 생기를 줍니다(「희망으로 구원된 우리」[Spe Salvi], 3항, 7항 참조).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갑니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이사 40,31).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루카 18,1)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필요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은 위험한 망상입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우리 개개인과 사회의 연약함을 더욱 인식시켜 주었다면, 이번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하느님 믿음에서 오는 위안을 체감하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 삶의 악을 뿌리 뽑읍시다.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육신의 단식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을 강인하게 해 주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지치는 법 없이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참회와 화해의 성사 안에서 용서를 청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탐욕에 맞서 싸웁시다.**

우리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애덕으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행을 합시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2코린 9,10)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십니다.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을 실천합시다.

3.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농부의 마음을 달라고(야고 5,7 참조), 선행을 베푸는 데에 인내하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꾸준히 청합시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악의 유혹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너 그러이 용서하시는"(이사 55,7)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이 회개의 때에 하느님 은총과 교회의 친교에 힘입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단식은 토양을 마련하고 기도는 물을 대며 자선은 비옥하게 만듭니다. 모든 이를 향한 형제애를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2코린 5,14-15 참조)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고, 하늘 나라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그때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1코린 15,28)이 되실 때입니다.

구세주를 태중에 품으시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 곰곰이 되새기신"(루카 2,19)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은총을 얻어주시기를 청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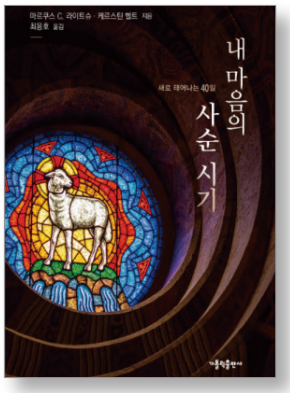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가톨릭 신학을 소개합니다

박병규 외 지음 | 성서와함께 | 35,000원

보통 사람들에게, 신학은 거창한 주제가 풍기는 위압감에 다가가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신학자 같은 소수의 전문가만이 배울 수 있다고 여기며 굳이 신학까지 '배워야 하나?' 하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책은 전통적인 신학 분야에서부터 환경과 관련된 생태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을 통해 오늘 가톨릭 신학의 갖가지 분야를 이해하는 탄탄한 토대를 놓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이해를 발판 삼아 '오늘, 여기' 우리 삶과 하느님의 관계를 성찰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에, 이 책은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40일 내 마음의 사순 시기

마르쿠스 C. 라이트슈, 케르스틴 헬트 지음 | 최용호 옮김 | 가톨릭출판사 | 8,000원

사순 시기 하면 '절제와 희생'만 떠오르나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나요? 정작 많은 신자들은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사순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 시기의 본질은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정화시킴으로써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은 사순 시기가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이들에게 사순의 진정한 의미와 더불어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기 위해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없애는 간단한 실천방법들을 소개하며, 고행과 단식과 같은 희생을 실천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사랑으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

장재봉 지음 | 꿈꾸는요셉 | 6,000원

피하고 싶은 십자가, 그래서 더욱 장재봉 신부의 '사랑으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이 마음을 이끕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서 오직 사랑을 건지고 만지며 건네줍니다. 하여 주님께서 겪으신 아픈 사랑에 전율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하도록 이끕니다. 사랑은 꼭 달콤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처절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아팠습니다. 그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삶을 담금질하는 사순,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이 진리에 집중하도록 돕는 데에 십사처 그림도 한몫을 합니다.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십자가 바라보면서

채순기 바오로 글/곡

한의대를 다니던 창창한 젊은이가 어느 날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두 번의 수술에도 끝내 하반신 마비로 살게 되었다면 하느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청춘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타인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원망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바라본 십자가에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를 만든 채순기 바오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곡이 1994년 '창작성가 공모'앨범을 통해 소개된 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십자가를 품어 안은 한 신앙인의 진실한 체험과 고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순 시기, 여러분과 동행할 참 좋은 벗으로 이 곡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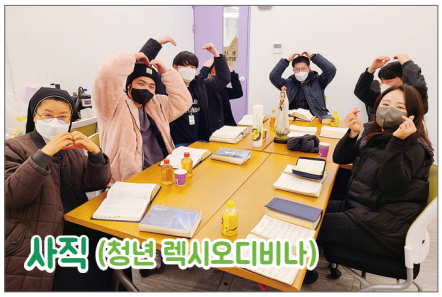
김정훈 사도요한 (금정성당)

성가 듣기

성체와 말씀의 해를 지내는 우리 신자들 ①

우리 교구는 올해 사목지침을 통해 '성체'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며 살 것을 당부했다. 양정, 명촌, 사직성당을 비롯한 많은 본당은 성경 필사, 성경 문제 풀기, 말씀 나눔, 성시간 참여, 사목실천표 점수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회칙 『찬미받으소서』 읽고 독후감 쓰기, 걸어서 성당 가기 등 일상 속 작은 실천 캠페인을 통해 생태적 회개를 위한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명촌 (성시간)


사직 (청년 렉시오디비나)

양정 (사목실천표 점수제)

장유대청 (성경 문제 풀기)

2022년 직수여 미사

지난 2월 27일(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2022년 직수여 미사'가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거행됐다. 이날 우리 교구 신학생 신재철 스테파노(문현성당)와 이동훈 미카엘(이기대성당)이 시종직을, 조원석 아론(범서성당)이 독서직을 받았다.

새샘학교 1단계 연수

2월 19일(토), 20일(일) 푸른나무교육관
청소년사목국 주관(국장 : 윤정현 신부)

사순 제1주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공동의집 돌보기

Ⅶ. 다양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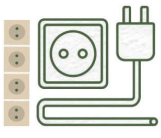
61. 많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교회가 단정적인 견해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견들을 존중하면서 솔직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의 집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언제나 헤쳐 나갈 길이 있고, 길을 바꿀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급속한 변화와 훼손으로 상황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표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60항~61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60항~61항 영상 보기
낭독 : 부산ME 대표부부
김정주 세례자요한 · 김영숙 소화데레사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고 멀티탭 개별 스위치 사용하기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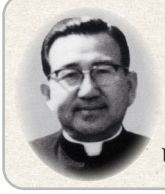
(루카 4,1-2 참조)

[나만의 성구]

절취선

위의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 간 (2021.11.28.~2022.11.20.)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1981.3.11.
배봉룡(바오로) 신부님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

- ▶게재 기간 2022년 4, 5, 6월 (3개월)
- ▶접 수 2월 28일(월)부터 선착순 / 이메일 (jubo@catb.kr) 혹은 팩스(629-8756)
- ▶금 액 1회 6만원(기본 3회 18만원)
- ▶서 류 교적사본(본인) 혹은 본당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
- ▶신청서 교구 홈페이지 우측 '광고신청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 ▶문 의 629-8752

교 구

예비신학생 입학 및 개강 미사

· 3.13(일) · 각 소속본당
(인증사진은 각 담임신학생에게 전송)

예비신학생 월모임

중1, 중2, 중3 : 3.13(일) (ZOOM 비대면 수업)
고1 : 3.13(일) 10:30 교구청 2층 성소국
문의 : 629-8760(성소국)

교구 혼인강좌

· 일요일 15:00~18:50 (매월 1~2회)
· 부산가정성당, 울산대리구청
대상 : ①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② 교회혼인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
접수 : 100% 온라인 (catholic-marry.or.kr)
비고 : 회당 선착순 50커플, 당일접수 불가
문의 : 441-3501(가정사목국)

본 당

중앙성당 평일 새벽미사 반주자 구함

내용 : 평일 새벽미사(06:30) 반주
문의 : 246-4284(본당 사무실)

기관·제 단체·위원회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 치유기도회
· 3.9(수) 13:00~15:00
-금요 밤미사
· 3.11(금) 20:30~22:30
-100단 묵주기도회
· 3.14(월) 12:30~16:00
-젊은이 기도회
부산 : 3.14(월) 19:30 전포성당
울산 : 3.23(수) 20:00 대리구 별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월 21일~2월 27일] 소계 : 600,000원

강양자 50,000	정경애 50,000	이상우 100,000	조미애 100,000
공영옥 50,000	신양순 50,000	박현호 200,000	

※ 지난 모금 내역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금 누계 : 939,382,334원

사용 누계 : 701,667,700원

잔액 : 237,714,634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주) 씨피여행사
www.cptravel.co.kr
▣ 국제선항공권 : 010-3832-4106
▣ 성지순례문의 : 010-3837-6434
▣ 제주,울릉도,전세버스 : 247-5858

바룸내과의원
소화기/간질환,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건강보험공단 지정검진기관
내과전문의 2명 문재현, 박기태(베드로)
지하철역 온천장역 1번 출구 150m
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

협성주단·한복
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여
강 영 숙(헬레나) 이 용 복(안드레아)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문 안쪽)
646-1123
010-3594-2137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상담 010-5616-8600

삼성내과 엠알영상의학과
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전문의 8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3명, 산부인과 검진 1명
박 인 호(루카), 서 수 홍(라파엘)
하단역 2번 출구 208-5566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제반 분야 각종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정 민 (가브리엘)
513-3493, 010-9594-2360
부산지방법원(거제동) 맞은편 서정빌딩 7층

준요양병원
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
병원장. 최 준 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 동래구 안락동 433-5번지(충렬대로 372)

안락성모안과
백내장 / 노안수술 / 안종합검사
황반변성, 녹내장, 드림렌즈
원장. 장 현 덕 (바오로)
상담문의 525-5656
안락로타리 부산은행 4층 (충렬사역 2번출구)

덕천 길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원장. 박 우 일(요셉)
331-8888,8899
덕천역 9번출구 앞 파리바게트 건물 6층

황령대리점 1%유정란 가정배달
난각번호1번 자유방목유정란
건강하고 신선한 계란을 먹고싶다면
남구,수영구,동구(매주 수요일)
가정배달 신청하세요
010-5709-8522 임복연 (안젤라)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부산 : 3.10(목) 10:30 우동성당
양산 : 3.14(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 3.15(화) 10:00 야음성당
문의 : 600-8800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부산 : 3.8(화) 14:00 가톨릭센터 6층 체칠리아홀
울산 : 3.26(토) 10:00 옥동성당
문의 : 441-7729

부산교회사연구소 제107회 학술연구발표회
·3.12(토) 14:00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마르티노관 202호 / 문의 : 519-0471
1주제-18~19세기 천주교 전교활동과 대청무역(김숙경) / 2주제-『성교요리문답』 한글 목판본에 관한 연구(양인성)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문의 : 462-0334(평일 14:00~17:00)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매주 화 14:00~16:00 ·선교회 3층 성전
사전예약제 시행 / 전화면담 가능
문의 : 010-5166-1993(박성태 신부)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주 2회(매주 월, 금) 14:00~15:30
문의 : 515-0030

부산교구 역사 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 **수집내용** : 1990년 이전 교구 관련 자료
- **수집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 **수집장소** : 본당, 사무처, 부산교회사연구소
- **문 의** : 519-0471(부산교회사연구소)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3.8(화) 10:00 ·이기대성당
·3.9(수) 10:00 ·월평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3.10(목) 14:00 / 문의 : 634-4820, 636-4819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2층 경당

성심영성센터 그리스도의 모상 이콘화(초급반)
·목요반/금요반 14:00 ·성심영성센터
문의 : 010-3072-3103(정마리아 수녀)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장년 회원 모집
대상 :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45세 이하 신자
문의 : 010-3572-0815

무아의 집 어르신 모집
대상 : 만 70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하신분
1인실 3,4층 모집 / 문의 : 010-5955-6185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3.13(일) 14:00~17:00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 1번출구)
대상 :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 010-3817-0567, columban.or.kr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 3.11(금)~19(토) / 4.1(금)~9(토)
말씀피정 : 4.28(목)~5.1(일)
문의 : 010-3340-0201(횡성 도미니코피정의집)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피정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
1박2일 : 4.30(토)~5.1(일)/6.11(토)~12(일)
3박4일 : 3.24(목)~27(일)/4.7(목)~10(일)
8박9일 : 3.11(금)~19(토)/4.20(수)~28(목)
40일 : 3.10(목)~4.18(월)/9.14(수)~10.23(일)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3.17~19, 3.30~4.1, 4.4~6, 4.10~12, 4.19~21, 4.24~26, 4.30~5.2, 5.6~8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 (02)773-1455, (064)796-4182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자연순례 : 3.19~21, 4.18~20, 4.29~5.1
성지순례 : 3.12~15, 3.26~29, 4.2~5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202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내용 :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접수 : 3.31(목)까지, 우편접수가능
문의 :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기간 : 2022.3월~12월 / 문의 : (02)828-3600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해외선교)	원하는 날 (미리 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3.13(일) 12:00	봉래성당	010-3208-1973
가르멜수도회	매월	서울가르멜수도원	010-2140-7414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주도하며
인간존중과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언어치료사 및 청능사 양성
www.cup.ac.kr sht.cup.ac.kr

호흡기내과 김준형 과장 부임
'천식, 기관지질환,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메리놀병원TV 이비인후과 정태영 과장
"알레르기 비염, 이것만 기억하자!"
유튜브로 확인해보세요.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대표전화 : 465-8801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토, 일, 공휴일 : 11, 13, 15, 17시
051.441.3500 catholicwedding.kr
스드메 특전 제공(2020.11.~)
1939 · 2018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주름개선

다인요양원·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요양/주간보호/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 상담/신청대행
시설장. 옥 승 우(바오로)
723-6636, 010-6836-0613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376-28

일산자동차매매상사
매매·교환·위탁·폐차·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대표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제네시스, 아반테 등)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주)금정소방
소방시설점검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조진호(보나벤뚜라) 514-0119
010-8516-0119

라이프치과의원
전문과목 / 임플란트, 틀니
(65세이상 보험 임플란트, 틀니 환영)
치의학 박사. 최 재 훈(바 오 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금구)
743-3334
해운대 31번 종점 맞은편 8층 건물(2층)

동아대학교 음악치료전공
석사·박사 모집
21세기 유망직업 〈음악치료사〉
문의 : 담당교수 이지우(마리아)
010-2350-8075

이삿짐은 우리트랜스로
돌아가신 분 유품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 변성만(요한)·권명숙(로사리아)
582-1414
010-4042-8662

수요양병원
노인성질환/재활/암요양
이사. 오 세 문(베드로)
상담문의. 750-70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1 (양정동)

미카엘여행사
국내성지순례 모집
제주성지 순례 3일/4일
3.21~24, 4.18~21, 5.2~4, 5.5~8
한국성지167 완주
대전교구 3.28(월)~31(목)
010-8650-9690

독일보청기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 (글라라)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1층, 빨간색 간판)